

No.3

# Japan Weekly Digest

2009. 10. 8 ~ 10. 14



사단법인 **한일경제협회**
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**Japan Weekly Digest  
(No.3)**

(사)한일경제협회  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  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 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  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  
02-3014-9800

## ■ CONTENTS

### □ 금주의 이슈

- 국제 카르텔관련 외국기업 첫 제재
- 하네다를 국제허브공항으로
- 일본 빈곤율 세계 30개국 중 4번째로 높아
- ‘구미-후쿠오카 한일산업교류전’ 14일 개최

#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한중일 정상, FTA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
- ‘한중일 비즈니스 서밋’ 베이징에서 개최
-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 65%

### 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그린IT포럼에 아시아 각국이 참여
- 에코포인트·친환경차 보조금 폐지
- 중소기업 대출 변제기간 3년 연장

#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, SERI

\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
일본지식정보센터

## □ 금주의 이슈

### ○ 국제 카르텔관련 외국기업 첫 제재 (10/8)

- TV용 브라운관 판매에서 한국, 일본, 대만, 태국 등 11개사에 의한 국제 카르텔과 관련, LG필립스, 삼성SDI에 대해 각 1억5천만엔, 13억 7천만엔 과징금 납부 명령
- 2003년 5월부터 인도네시아, 태국 등지에서 각 기업이 2개월에 1번 정도의 회합을 가져 동남아 현지 일본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CRT의 저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최소가격을 담합

### ○ 하네다를 국제허브공항으로 - 인천 공항과 경쟁 예고 (10/12)

- 마에하라 세이지(前原誠司) 일본 국토교통상은 12일 동경 하네다(羽田) 공항을 국제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힘
- 나리타공항이 완공된 1978년 이후 국제선은 나리타, 국내선은 하네다로 분리해서 운용한 결과 일본엔 허브가 없고 한국의 인천공항이 일본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

### ○ 일본의 빈곤율 세계 30개국 중 4번째로 높은 비율 (10/8)

- 멕시코 18.4%, 터키 17.5%, 미국 17.1%에 이어 일본은 14.9%로 독일 11%, 영국 8.3%, 네덜란드 7.7%보다 높은 비율 차지
- 일본에서 생활보호대상 가정에 대한 수급이 현저히 낮으므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 한도액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

### ○ ‘구미-후쿠오카 한일산업교류전’ 14일 대구서 개최

- IT와 부품소재,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‘구미-후쿠오카 한일산업교류전’이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### ○ 한중일 정상, FTA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

-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3국 FTA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3국 간 투자협정을 조기에 매듭짓기로 합의
  - 이에 따라 3국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
-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도 밀접한 관계. 한중일이 공동체 구상의 핵심인 만큼 이 구상의 실천을 위해서는 FTA 체결이 선결과제
  - 하토야마 총리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반발 충을 의식, 먼저‘한중일 투자협정’을 체결하고 FTA에 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겠다는 전략

### ○ ‘한중일 비즈니스 서밋’ 베이징에서 개최

- 한국 전경련, 중국 국제무역촉진위, 일본 경단련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한·중·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‘한·중·일 비즈니스 서밋’을 개최하고 3국 경제계가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발표
  - △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△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저지 △한·중·일 FTA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
- 3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한·중·일 비즈니스 서밋의 상설화를 추진하고,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·중·일 정상회담 기간에 제2차 한·중·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에 합의

### ○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 65%. 아사히신문 10월 여론조사

- 내각 발족직후의 71%에 비해 조금 내려간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 수준 유지.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16%
- 민주당에 대응하는 정당으로 ‘자민당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.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80%로 부정적 응답층 13%를 크게 상회

## □ 경제산업성 동향

## ○ 그린IT포럼에 아시아 각국이 참여 (10/12)

- 경산성은 아시아 6개국(한국, 중국, 인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)의 산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‘제1회 아시아 그린IT 포럼’을 개최
  - 이 포럼을 통하여 아시아의 온난화문제에 대한 IT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교환, 인식 공유를 지향

○ 경산성, 내년도 예산에 **에코포인트·친환경차 보조금 반영하지 않아**

- 나오시마(直嶋) 경산성장관이 에코포인트 사업과 친환경차보조금을 2010년도 예산요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와 관련, 가전업계와 자동차업계의 실망이 커지고 있음
  - 에코포인트와 친환경차 보조금이 해당 상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쳐온 만큼 연장을 바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큼
- 반면, 환경성은 에코포인트제도가 환경대책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라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경산성과의 조율을 시사

○ 중소기업 **대출 변제기간 3년 연장**

- 현장에서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되었지만 ‘불황에 따른 경영악화’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3년 뒤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목소리
- 이와 관련, 오카무라(岡村)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산성장관과의 회담에서 ‘필요한 것은 일’이라며 불황 탈출과 성장전략 마련을 요구

## ○ 경산성, 전자정부 도입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

- 전자정부 도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‘전자 경제산업성 아이디어 박스’를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용

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’, 삼성경제연구소, 2008. 8. 25.

### ○ 환경시장 일본 주도권 장악 대비해야

-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, 환경·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하는바,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

### ○ 국제사회에서 환경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 기대

- 일본은 향후 국제적 논의에서 발언권을 높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함
  -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후발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의 에너지 절약, 환경관련 제품·부품 등의 산업에서 반사이익 기대

### ○ 기술력 우위를 통한 경제성장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작용

-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분야별 CO<sub>2</sub> 배출 감축범위를 설정하는 ‘섹터별 어프로치’ 주장
  - 분야별 감축 가능 범위를 산정할 때 현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
- 부문별 접근법이 채택 되면 환경 부문 후발 국가는 일본 등으로부터의 선진기술 수입으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 일본은 이러한 환경·에너지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제고로 연결시키겠다는 것

### ○ 온실가스 강제 감축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

- 앞으로 도래할 저탄소사회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.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가와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과 논리를 개발해야함
  - △중국 등 주요 배출국들과의 공조 강화 △탄소배출권 시장 기반 정비 △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체제 구축 △에너지 효율 제고·청정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△청정에너지·그린 카 보급 확대책 마련